

철새 쫓아내는 강진만 철새 탐방로

강진군 2016년까지 탐진강~강진만 생태길 연차 조성
환경 훼손 심각... 비싼 자재대금 5억여원 예산 낭비도

강진군이 철새 도래지인 강진만 갈대숲에 고니 탐방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군이 수년째 조성중인 각종 ‘데크 길’이 경제적 타당성과 자연환경 조건에 맞지 않는 또 다른 환경훼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8억원(환경부 국비 4억·군비 4억원)을 들여 ‘고니자리길’(8km)을 조성하고, 2016년까지 칠랑 구로~만복~봉황마을을 잇는 ‘아촌마을문화길’(8.5km·사업비 16억원)과 남포~망호선착장 ‘바다자전거 청춘길’(11km·16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탐방로는 ‘가우도 숲생태탐방로’와 연결돼 강진만 80리길을 완성한다.



2012년 태풍 온타리오로 인하여 파손된 구간이 많아 위험하니 잘 걸어야 합니다

생태탐방로 사업대상지는 탐진강 하류와 강진만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강진읍 목리~남포 내수면구간이다. 여기에 철새인 고니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의 생태계를 사계절 관찰할 수 있는 ‘고니자리 탐조공원’ 및 휴게쉼터가 조성된다.

하지만 공사비용의 80%가 소요되는 주재료가 물에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천연 목재데크(폭 1.5m×높이 1.0m)로 설계돼 있고, 기초파괴까지 천연 방부목으로 박는다는 것이다. 이달에 발주한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시공비 1억5000만원에 자재대금이 무려 5억5000만원이다. 공사비용 대부분이 천연목재 대금으로 ‘물속에 수십억원을 빼뜨린 셈’이다.

지난 17일 제방을 따라 탐방로 설치현장을 둘러보니 갈대밭 사이에서 유행하던 각종 철새들이 놀라 황급히 바다 건너편 제

강진군이 지난 2011년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한 조성한 칠랑면 초당림 입구~초당연수원간 목재데크가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어 군데군데 끊겨 ‘잠정폐쇄’ 상태이다.

방 쪽으로 날아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탐방로 시설물이 들어서면 철새 서식지를 도리어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구간은 장흥~강진 강물이 모이는 지점으로, 큰비나 태풍이 오면

급류나 쓰레기 더미에 밀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민들은 “군이 지금까지 설치한 각종 ‘데크 길’이 실속없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사업비 14억원(산림청·도비·군비)을 들여 조성한 칠랑면 초당림 입구~초당연수원(구간 2km) 천연 목재데크 길의 경우 현재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어 ‘잠정폐쇄’한다는 뜻밖만 걸여놓은 채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겨우 1년 사용하고 3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09년 국비(26억)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사조 위락단지’는 해마다 적잖은 유지 보수비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200여m 길이의 ‘사조(사자)형’ 목조 그늘터널과 사내호 주변 데크로드가 간헐적 소금성분에 부식되면서 보수하거나 일부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도암면 신기항 ‘해안조망권 돌레길’ ▲신전면 별정리 ‘해안경관조망 조성사업’ ▲강진읍 호수공원내 목조 야외음악당과 전망대 등 크고 작은 목재 시설물들 역시 이용객들이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고모(54)씨는 “큰비만 오면 위험천만한 곳에 군이 목재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강진만은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가 월동하는 도래지인데 군이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 생태탐방로로 지정받아 조성한 사업이라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아열대 채소 ‘콜라비’ 출하 준비 한창

18 농가 2ha 틈새 작목 재배
농기센터 “주산단지로 육성”

강진지역 농업인들이 단기재배 틈새 작물로 콜라비(Kohlrabi)를 생산, 소비자 입맛을 유혹한다

20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성전면·작천면·병영면 18 농가 2ha에서 아열대채소 콜라비를 재배,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콜라비는 여름작물 수확 후 9월 중순

께 정식하면 11월 하순부터 출하가 가능하다. 재배농업인들은 당도 측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재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강진은 따뜻한 기후와 주·야간 온도차가 높아 아열대 작물인 콜라비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콜라비 당도가 9~10브릭스로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좋고 맛이 좋다.

80일 정도의 짧은 재배기간과 병해충이 적고 겨울철 농한기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틈새 소득작물로서 크게 기대되는 작물이다. 강진지역에는 지난 2012

년에 읍·면 특화작물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재배농가는 10 농가(1ha)였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창 원예연구팀장은 “강진지역을 전국 최고의 콜라비 주산단지로 육성하겠다. 콜라비 생산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콜라비는 양배추(Koh)와 순무(Rabic)를 교배시켜 만든 채소로 ‘순무 양배추’ 또는 ‘구경(球莖)양배추’라고도 한다. 비타민C 함유량은 상추나 치커리 등의 엽채류에 비해 4~5배나 높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난 19일 강진군 성전면 콜라비 재배농가에서 생육상태와 당도를 검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버섯연구원 특허기술 민간 이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그동안의 R&D(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주)새롭(대표 박종국)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버섯산업연구원원은 지난 3년간 수행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인 ‘표고버섯으로부터 비타민 D2를 생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업체에 이전했다. (주)새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비타민 D제제품과 원료를 제조·판매하게 된다. 기술이전 특허기술은 동물성비타민



기술이전 업무협약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전남도 복지지원단 공모

영암군 우수기관에 선정

영암군이 최근 2014년도 전남도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암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에서 열린 ‘2014년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영암’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운영부문 우수사례를 발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및 자원발굴 실적 ▲방문형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특화사업 실적을 종합 심사해 운영부문과 사례부문으로 나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강진시장서 ‘행복나눔 한마음 놀이마당’ 행사

강진 북부지역 4개면 주민

공연·체험·직거래 장터 열어

‘제2회 행복나눔 한마음 놀이마당 행사’가 강진 북부지역 4개면(성전·작천·병영·읍전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가운데 22일 강진읍 강진시장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강진군이 지원하는 ‘2014년 강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진시장을 외부

에 알리고 강진군 각 읍·면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첫 행사때 호응이 높았던 공연과 경품,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됐다. 읍·면 노래자랑과 평양예술단 등 공연행사를 비롯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관심이 높았던 칠보공예, 손수건 물들이기 등 체험행사도 더욱 규모있게 준비됐다.

강진시장 상인회는 먹거리 장터와 난타 공연을 준비했으며, 성전면과 작천면 등 4개 참여 면에서는 잡곡과 여주, 감시초 등

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경품도 풍부해 총 500명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1등(1명)은 김치냉장고(100만원 상당), 2등(2명)은 자전거, 3등(3명)은 반상기세트, 4등(100명)은 상품권, 5등(200명)은 수건을 받는다.

한편 강진시장은 지난 4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6년 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경제·관광 거점으로 육성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전원주택/상가/무인텔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된 혁신도시 인근 전망최상 매4억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자주 임야) 20,495 임대수익약 호 3억7천만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평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